

중세 남녀 속옷의 특성

김 주 애*† · 이 연 희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진주국제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Characteristic of Men's and Women's Underclothes in the Medieval Ages

Ju-Ae Kim*† and Yon-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 Beauty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2. 11. 19. 접수 : 2003. 3. 29. 채택)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social environment influenced underclothes and characteristic which underclothes have is associated with the outer garment and the underclothes in the Middle Ages. As a result, I can get the next conclusion First, throughout the Middle Ages, body was involved with the sense of same and sin influenced by the religious austerity. This mentality was applied to the underclothes. As underclothes are not generally revealed, it is recognized to be not important but inefficient. Second, in the late Middle Ages, as the outer garment reveal the body line, the underclothes are affected by it. So men's and women's distinction in the outer garment is applied to the underclothes.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14C, class distinction and sexual attraction certainly present on the outer garment but are not applied to the underclothes. The conceptions that underclothes might express the spirit of the changing times, in sympathy with the outer garment, did not enter the medieval mind. Third, the function to protect the body is emphasized the underclothing in the Middle Ages, whereas it was important to identify rank sign i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Throughout the Middle Ages the underclothing of both sexes is emphasized utilitarian in function rather than class distinction and sexual attraction. But women exposed their body line in thin chemise to represent sexual attraction in the late Middle Ages.

Key words: underclothes(속옷), the Medieval Ages(중세), function(기능).

I. 서론

최근에 들어 패션은 바디컨셔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보이는 그대로의 인체 표현보다는 인체를 암시하고 느끼게 하는 조형표현을 추구하는 쪽으

로 디자인이 증가되었다. 또한 여성의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패션도 한 종류를 이룸으로서 허리선을 표시하는 바디컨셔스 외에도 언더웨어 룩 등이 강조되어 속옷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¹⁾. 그리고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복고풍이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쳐 복고풍을 고려한 디자인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속옷

† 교신저자 E-mail : jakim@nongae.gsnu.ac.kr

1) 이경희,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2001), p.210.

에 대한 관심이나 복고풍에 대한 유행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속옷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속옷 연구는 속옷의 변천²⁾, 재질에 따른 속옷의 기능성³⁾, 속옷의 걸옷화 현상⁴⁾, 속옷 광고⁵⁾ 등에 관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므로 남성 속옷쪽으로도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고대는 남녀의 복 형태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한 벌이 걸옷과 속옷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속옷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나, 중세에 이르러 걸옷에 남녀 성별이 구분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이에 따른 구별이 속옷에도 적용되었는지 남녀 속옷을 함께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중세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속옷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속옷과 걸옷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중세 남녀 속옷의 기능과 구성을 통해 속옷이 갖는 형태적 특성을 고찰하여 향후 속옷 디자인이나 속옷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속옷은 걸옷에 비해 의복의 종류나 실루엣의 변화가 적고 단순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세의 속옷은 다른 시기에 비해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속옷 자료가 극히 미약하였다. 그러므로 형태 고찰시 동일한 조건의 형태 분석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속옷 항목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과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 속옷의 범위는 걸옷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거나 일부 가려지는 모든

의복을 총칭하는 Cunnington 정의⁶⁾에 준하였으므로 피부에 접한 최내층 의복 외에 최내층 의복과 최외층인 걸옷 사이에 착용된 중간층의 의복이 걸옷에 가려지므로 속옷에 포함하였다.

II. 사회·문화적 배경

중세는 서유럽을 무대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된 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경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중엽까지이다. 동로마 제국은 330년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로마 제제가 동유럽으로 이전했으며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변성에 힘입어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 일찍부터 발달한 비잔틴 복식이 서유럽의 중세 복식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모체가 되었으며 서유럽은 새로운 사회질서로 봉건제도가 이루어졌다. 복식은 이러한 사회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게르만 복식과 로마 복식의 융합된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종교 위주였던 중세는 전 유럽이 로마 카톨릭이란 공통된 신앙으로 통일되었으므로 의복에 있어서도 고대와는 달리 각 나라나 민족마다 독자적인 면보다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고대 의복 형태를 벗어나 신체의 곡선에 맞도록 재단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현대 의복에 입체구성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중세 말기에 이러한 경향이 속옷에도 적용되었다. 중세 종교에서는 육체를 죄와 악의 원천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신체와 밀착된 속옷도 부끄러운 것이나 죄의

- 2) 김주애,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오경숙,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정복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윤진아,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 (1995).
김주애,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고대에서 근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제3호 (2000), pp. 353-360.
- 3) 류숙희, "면·폴리에스테르 양면 이중 편성물 내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인명희, "Double Wearing법에 따른 속옷 착용체계와 착용감 연구", 서울대학교 (1992).
- 4) 최원, "서양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94).
有馬潤子, "Infra-Apparelと現代衣生活", *衣生活研究會*, 제39권 제6호 (1996), pp.10-15.
이상례,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한국복식학회지*, 제35호 (1997), pp.325-342.
- 5) 김미영, 한명숙, "속옷 광고의 구조 및 내용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65~1999 여성 잡지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3호 (2001), pp.33-46.
김미영, 한명숙, "여성잡지에 나타난 속옷 광고의 문화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5호 (2001), pp. 97-111.
- 6) W.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12.

식과 관련되었고, 또한 겸손함을 상징하여 순례자는 속옷만 착용한 채로 순례를 떠났으므로 중세에는 속옷과 종교의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⁷⁾. 또한 셔츠보다 드로워즈가 필수적이었으나 성직자는 청빈의 상징으로 드로워즈를 착용하지 않는 채 셔츠 차림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례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중세 중기에 해당되는 로마네스크 시대의 건축양식은 성당, 조각, 벽화, 공예품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 장식은 대부분 인물을 소재로 한 것이어서 당시 복식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십자군 원정 동안 군복이 유행되면서 신체 보호를 위하여 패드를 넣은 지뽕(gipon)이 애용되었다. 그리고 군복 안에 착용되는 속옷도 어느 정도 신체에 맞게 고안되었다. 특히 13세기는 유럽 중세 봉건사회의 전성기였으며 십자군의 시대였으므로 기사도와 연결된 중세문화가 발전하였다. 왕후, 영주, 기사, 농민이라는 신분제도가 확립되고 신분에 따른 복장 구분이 엄격하였다. 십자군의 영향에 의해 상공업의 발달이 촉진되고 서유럽 각지에 모직물산업이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풍습으로 중세의 기사는 영주에 대한 충성과 용감함을 존중하였으며 여성의 권위를 중시하였다. 여성은 기사의 피물은 속옷을 입수하고, 대신 자신의 견소재로 된 속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기사는 찢어진 상의나 천을 신체에 걸치고, 찢어진 부분을 통해 여성의 선물인 속옷을 보이도록 착용하여, 격렬하게 싸운 영웅인 점과 자신을 사모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였으며 여성도 기사로부터 받은 피물은 속옷을 피부에 걸치고 자랑하였다. 이와 같이 속옷의 교환은 남녀 사이에 성을 교환하는 준비의 의미이기도 하였다⁸⁾. 여성이 잠자리에서 슈미즈를 벗지 않는 것은 성적행위의 거절이었으며, 나체로 잘 것을 청하는 경우는 성적행위를 의미하였다.

중세 후기에 영국 왕실과 프랑스 왕실간의 왕위 계승 문제와 Flanders 지방의 양모공업으로 인한 백

년전쟁(1337~1453년)으로 인하여 국가주의가 발달하고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었다. 봉건제후가 몰락하고 새로이 등장한 중산계급의 신흥 상인은 귀족들의 생활양식과 의복을 모방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안해 내어 1420년대 이후 복식이 매우 화려해졌다. 중세도시의 발달과 장원 제도의 해체로 인한 유희 노동력이 직물 제조 공장에 흡수되어 직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14세기에 의복의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15세기경에는 고딕 건축의 첨두적 외관이 복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Ⅲ. 중세 남녀 속옷의 형태

1. 남 자

1) 언더튜닉(Undertunic)

비잔틴제국 시기에 남자는 보온 효과를 위해 튜닉 속에 좁은 소매로 구성된 긴 언더튜닉을 입거나 튜닉 위에 넓고 긴소매에 옷길이가 짧은 수퍼튜닉을 덧입어 안에 착용한 것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⁹⁾. 중세 초기(5~10C)에 남자는 착용 용도나 계층에 따라 길이가 짧거나 긴 언더튜닉을 달리 착용하였으나 소매는 보통 좁고 길었다. 중세 중기(11~13C)에도 셔츠(shirt)와 브레 및 한 벌이나 두 벌 이상의 언더튜닉이 속옷으로 착용되었고¹⁰⁾ 길고 험렁한 속옷 위로 타이탄한 겉옷을 착용하였다(그림 1)¹¹⁾. 14세기 초기에 언더튜닉은 꼬다르디 속에 착용되어 노출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겉옷 소매가 팔꿈치길이가 되자 언더튜닉의 소매는 팔꿈치부터 노출되었고 단추가 채워져 팔형태를 알 수 있었다.

2) 셔츠(Shirt)

중세 초기에 셔츠는 엉덩이길이였고, 착용하기 쉽게 앞 슬릿(slit)이 있는 등근 목둘레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셔츠 위로 한 벌이나 두 벌 이상의 튜닉이 착

7) Ibid., p.22.

8)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雄山閣, 1991), p.29.

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99), p.110.

10) Yarwood Doreen,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53.

11) Davenport Millia, The Book of Costume (Crown, 1948), p.115.



〈그림 1〉 Undertunic, 11C.
(The Book of Costume, p. 115)



〈그림 2〉 Chemise and braies, 15C.
(女の下着の歴史, p.61)

용되었다¹²⁾. 셔츠는 튜닉의 윗부분과 같은 형태로 11세기경부터 유행되었다. 14세기경에 이르러 언더튜닉의 착용이 감소되는 대신 셔츠와 브레의 착용은 증가되었다¹³⁾.

중세 후기(14~15C)에 이르러 셔츠는 허벅지 길이에 긴소매로 구성된 튜닉형태였고, 목둘레를 끈으로 오그리거나 목둘레와 소매 부리에 레이스나 색실로 자수 장식이 되었으며, 부드러운 리넨을 소재로 이용하였다. 특히 14세기 중엽 이후로 셔츠는 매우 짧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셔츠는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폭이 넓어졌으며 양쪽 옆은 막히거나 트였고 경우에 따라 뒤트임으로 구성되었다(그림 2). 트임이 있는 경우는 앞과 뒤의 패널(panel)이 같은 길이였고, 옆슬기 외에 트임이 더 앞쪽에 있는 경우는 앞 패널이 뒤 패널보다 짧았으며, 트임은 16세기부터 남자 셔츠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었다. 목둘레선은 둥근 것 외에도 각지게 파인 사다리꼴 형태로도 구성되었다(그림 2).

소매는 다소 풍성한 일직선이나 기모노 형태(ki-

mono type)였으며 커프스 없이 구성되었다. 상류층의 셔츠는 목과 손목부분에 자수로 장식되었다. 14세기에 셔츠는 목밴드로 구성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15세기에는 목밴드와 손목밴드에 색사로 장식된 것이 이용되었다. 목트임은 끈으로 여몄으나 14세기 중엽부터 단추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⁴⁾. 셔츠는 보통 앞쪽에 목트임이 있었으나 간혹 뒤에서 조여지기도 하였다. 15세기에 셔츠는 보통 목둘레가 넓게 파였으나, 1430년대부터 20년 동안은 예외적으로 똑바로 선 높은 칼라(up right collar)가 겉옷 위로 많이 노출되기도 하였다(그림 3). 소재로는 모, 린넨, 대마가 많이 이용되었다. 상류층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넨이나 견을 이용한 반면에 하류층에서는 조악하고 두꺼운 리넨을 주로 이용하였다. 15세기에 이용된 나사 셔츠(cloth shirts)¹⁵⁾는 리넨 셔츠와 더블릿(doublet) 사이에 착용되었다. 중세 말엽에 의복형태가 밀착되자 셔츠가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었다¹⁶⁾. 뿌르뵈엥(pourpoint) 속에 착용되었던 리넨 셔츠는 15세기 이후 겉옷으로 더블릿이 착용됨으로써 더블릿 속에 착

12) <http://www.eb.com:180/>, Britannica.

13) Yarwood, Doreen, *op. cit.*, p.76.

14) 15세기 후반의 위대한 Flanders의 화가(1440-1482) Hugo van der Goes의 작품인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에서 단추 사용의 예를 나타냄, Uffizi Gallery Forence 소장.

15) 羅紗 셔츠:두껍고 촘촘하게 짠 모직물 셔츠

16) <http://www.eb.com:180/>, Britanica.



〈그림 3〉 Shirt, 15C.
(The Louvre Paintings, p.21)

용되었다¹⁷⁾. 15세기 후기에 셔츠는 겉옷의 가장자리와 트임을 통하여 노출되었다. 중세의 속옷은 죄의식과 연관되어졌으므로 처벌이나 고해성사 때 속옷



〈그림 4〉 Shirt, 15C.
(Survey of History Costume, p.121)

의 착용이 강요되어(그림 2, 4) 셔츠나 브래(braies)만 착용한 채로 참회하였다¹⁸⁾. 농부는 슈미즈와 브래 중에서 한 품목만 착용하기도 하였다¹⁹⁾. 셔츠는 슈미즈나 까미시아(camisia)로도 불리워졌다²⁰⁾. 중세 속옷인 셔츠는 1930년대 이후로 많이 착용되면서 겉옷으로의 활용이 많아짐으로써 속옷사에서 일부 품목은 의복 용도가 변화되어 이용되었다.

3) 브래(Braies)

브래는 무릎이나 발목길이로서 짧은 튜닉 밑에 착용하였고 초기에는 서민과 노예가 착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왕도 착용하게 되었다. 느슨하고 헐렁한 쇼츠(shorts)는 언더-호즈(under-hose)나 브레로 칭하였다²¹⁾. 색슨족(Saxon)은 드로워즈(drawers)에 대해 브레나 브리치즈(breches, breech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게르만인은 브라코(braco)라 칭하였다. 브리치즈란 명칭이 겉옷에 적용된 후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중세 속옷에 대해 '브래' 명칭만 사용되었다. 12세기에 여전히 겉옷으로도 함께 이용된 브래(당시 브리치즈로 통용)의 형태는 좁은 풀 때문에 뒤에다 슬릿을 넣어 다리부분이 헐렁하게 구성되었고 종아



〈그림 5〉 Braies, 13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27)

17)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5), p.134.

18)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p.4.

19)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400* (Herbert, 1990), p.14.

20) P. Tortora & K.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p.140.

까미시아는 셔츠와 슈미즈에 대한 이탈리아 용어.

21) Joan Nunn, *op. cit.*,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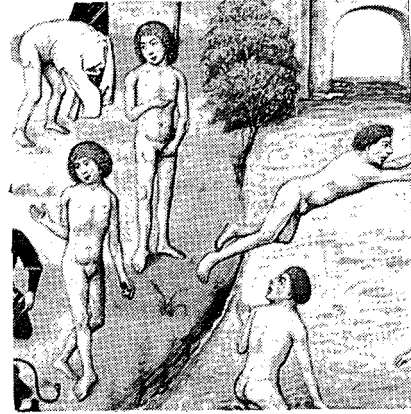


〈그림 6〉 Braies, 13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26)

리 중간길이였다. 또 다른 형태는 농민이 착용한 발목길이의 브레로 판탈론(pantaloon)과 유사하였으며 흰 리넨이나 옅은 갈색의 방모 소재를 이용하였다(그림 5). 이 두 형태는 허리를 끈이나 띠로 묶었고, 허리부분이 꼭 맞게 되어서 앞트임이 필요하였다²²⁾. 12세기 후기에 브레는 실제 속옷화되면서 엉덩이부분이 풍성해졌으므로 앞트임이 사라졌다. 브레가 짧아지면서 반대로 호츠는 위로 길고 넓어져서 다리를 완전히 덮을 정도였다. 브레 허리띠는 앞에서 당겨 조이는 끈으로 매어졌고(그림 6), 이 끈은 때때로 지갑이나 열쇠를 감추기 위해 허리띠에 부착되었다.

13세기에 브레는 무릎길이가 짧아졌고, 밴드가 없는 허리부분은 허리띠에 꿰매져서 관 형태의 옷단(coulisse) 속으로 뒤집어졌다. 이것은 엉덩이 위쪽으로 당겨지고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어 부풀은 형태였으며 'in and out' 페메임²³⁾으로 되었다. 노동자는 여전히 긴 브레를 착용하였으며, 이 긴 브레는 단부분이 활동에 편하도록 허리끈을 이용하여 위로 걷어올려졌다. 이 경우 바지부리를 뒤집어 끈에 매거나 바깥쪽으로 반쯤 꼬은 다음 위쪽으로 묶었다.

14세기경에 브레는 허벅지 위로 매우 짧아져서



〈그림 7〉 Undershorts, 15C.
(*Unmentionables*, p.115)

셔츠는 더 이상 브레 속에 집어넣을 수 없게 되어 허벅지 위로 드리워졌다. 브레가 더욱 좁고 짧아짐에 따라 착용하기 쉽게 바지부리의 가장자리에 앞쪽이나 옆쪽으로 트임이 있었다. 14세기 말엽에 뒤집혀진 가장자리나 허리띠를 포함한 옷단은 더욱 좁아졌고, 브라게트²⁴⁾로 구성된 허리띠는 앞에서 버클로 여뒀다²⁵⁾. 1340년경 이후로 허리에 호츠, 지갑, 열쇠 등을 부착하던 기능은 사라졌다.

15세기 전기에 브레는 더욱 짧아져서 짧은 로인클로스 형태와 같게 되었으며 바클로 고정된 허리띠 대신 당기면서 죄는 좁은 끈으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나온 끈은 나비매듭으로 묶어 주머니처럼 부풀려진 형태를 이루기도 하였다²⁶⁾. 또한 남자 브레는 수영복으로도 이용되었다(그림 7). 수영복으로 이용된 언더 쇼츠(under shorts)는 현대에 권투 선수들이 착용하는 쇼츠와 유사하며²⁷⁾ 중세 말기의 짧은 브레(그림 8)는 현대에 착용되는 브리츠(briefs)와 같은 형태로써 나타났다.

22) W. Cunnington, *op. cit.*, Dover, p.27.

23) 끈이 통과할 정도의 간격은 유지하면서 바지 허리단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접어 꿰맨 뒤 다시 같은 간격으로 허리단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꿰맨.

24) W. Cunnington, *op. cit.*, Dover, p.30.

바지 앞쪽의 틈 곳에 주머니 모양의 앞트임 덮개, bragutte(佛).

25) W. Cunnington, *op. cit.*, Dover, p.30.

26) *Ibid.*, p.31

27) Elaine Benson John Esten, *op. cit.*, p.115.



〈그림 8〉 Short Braies, 15C.
(The Louvre Paintings, p.237)

4) 웨이스트코트(Waistcoat)

15세기 중엽부터 착용된 웨이스트코트는 16세기 말까지 페티코트(petticoat)라는 용어로 이용되었고, 이외에 쥬베(jube, jupe)라고도 칭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슈미즈와 꼬다르디 사이에 속옷으로 착용되었고 민소매나 소매가 있는 언더듀블렛 형태였다²⁸⁾ (그림 9). 페티코트는 후에 웨이스트코트로 알려졌으며 1520년 이후로 착용이 감소되었다. 여성은 중세 남성의 페티코트 용어를 차용하여 여성의 속옷에 적용시켰다²⁹⁾. 페티코트나 이것의 후속물을 속옷으로 분류하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17세기에 웨이스트코트가 일시적으로 겉옷으로 부상되기도 하였지만, 중세의 페티코트는 겉옷에 의하여 완전히 감추어졌고 보온을 목적으로 착용됨으로써 속옷 기능을 나타내었다. 소재는 주로 리넨을 이용하였고 방모나 면부스러기로 채워진 패드를 덧대어 보온의 효과를 증대시켰다³⁰⁾.

중세에 속옷으로 이용된 웨이스트코트가 3세기 후에는 겉옷의 용도로 많이 이용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속옷사에서 오래 동안 가리워져 착용되던 속옷



〈그림 9〉 Jube, 15C.
(Western World Costume, p.145)

중에 특정 품목은 오히려 겉으로 나와서 눈에 띄는 의상 품목이 됨으로써 겉옷의 용도로도 많이 이용되어 남성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일면을 나타내었다. 중세에 남성 의복 용어인 페티코트, 슈미즈, 드로워즈 등은 후에 여성 속옷 명칭으로 이용되어져서 여성이 남성 속옷의 명칭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2. 여 자

1) 스 목(Smock)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유럽의 복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추운지역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밀착된 의복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하를 나눈 투피스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이 복방계 사람들에게 의해 스목이 착용되었다. 이것은 원래 겉옷으로서 튜닉 위에 착용되었지만 나중에 속옷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 동방의 문화가 유럽에 전래되어져, 복장에도 화려한 것이 찬미되고 타이트한 의복으로 발전되어짐으로써 12~13세기 속옷에도 몸통에 피트된 것이 요구되기 시작하여 옆선의 윤곽만으로 몸통에 피트된 스목이 나타났다³¹⁾.

스목은 여성에만 적용된 속옷의 색슨 명칭이었으며 노르만인은 슈미즈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피부에 접하여 착용된 스목은 머리 위로 입기에 충분하게 목선이 트였다(그림 10). 10, 11세기에 유행한 리넨 스목은 남자의 긴 언더셔츠와 같은 형태로 재단되어³²⁾

28) Bradley Carolyn G., *Western Wore Costume*. (Dover, 1996) p.136.

29) W. Cunnington, *op. cit.*, Dover, p.13.

여성은 중세 남성 속옷의 슈미즈, 드로워즈, little coat(petticoat)로부터 용어를 차용하여 여성 속옷명칭으로 이용함.

30) W. Cunnington, *op. cit.*, Faber & Faber, p.24.

31) 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社団法人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p.112.



〈그림 10〉 Smock, 140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32)



〈그림 11〉 Chemise, 15C.
(*Survey of Historic Costume*, p.121)

남자 속옷과 유사하였다. 십자군 원정 동안 스복은 긴 직선 소매, 둥글고 작은 목선, 발목길이로 구성된 형태가 계속 유지되었고 주름 외에 목이나 진동돌레에 자수로 장식되었다(그림 11).

12세기경에 이르러 신체에 밀착되는 것이 요구되기 시작하여 속옷에도 윤곽선을 드러낸 스복이 나타남으로써 12세기경 스복 위로 커튼이 착용되었으며³²⁾ 스복의 트임이나 겹옷의 슬래쉬를 통해 피부가 노출되었다. 14세기에 스복의 앞에 트임이 생겨났다. 고딕시기 초기에 여자 속옷은 남성 속옷과 유사하게 변화되었다. 처벌의 경우에 속옷 착용이 강요되어 간통죄를 지은 여자는 교회에서 슈미즈 차림으로 고해성사를 하였다. 14세기부터 남성 속옷으로 셔츠가 적용될 때 여성도 스복이 적용됨으로써 슈미즈용어는 점차 사라지고 스복이나 쉬프트(shift), 까미사아 용어 등이 이용되었고³⁴⁾ 특히 농민녀의 단순한 스복은 cotteron으로 불렸다³⁵⁾. 소재는 고운 리넨, 견(cesndal, samite), 견혼방(chainsil) 등 비쳐 보이는 얇고 투명한 천이 이용되어(그림 11) 남성의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색상은 사프란색, 금색, 크림색 등이 유행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은 투명한 소재나 선정적 색상을 통해 성적매력을 나타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2) 언더튜닉(Undertunic)

여성은 슈미즈 외에 발끝길이의 언더튜닉을 착용하였다(그림 12). 남성 속옷에 이용된 가장자리 장식이 여성의 언더튜닉에도 이용되었다. 중세 초기에 비해 12세기에 이르러 속옷은 이전에 비해 길어지고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형태가 유지되었다. 신분이 낮은 층이나 노동층은 겹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언더튜닉만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언더튜닉에는 주름이 정교하게 되어 있고, 단추로 고정된 겹옷과는 달리 작은 퍼블라로 고정되었다³⁶⁾. 언더튜닉은 겹옷과는 달리 흰색이나 옅은 색에 목과 단 가장자리에 자수가 되었으며 밀착된 소매로 구성되었다. 발끝길이인 아웃튜닉은 언더튜닉

32) P. Torrtora & K. Eubank, *op.cit.*, p.92.

33) W. Cunnington & P., *Hand book of Medieval Costume* (Faber & Faber, 1973), p.36.

34) Cunnington & Beard, *op. cit.*, p.43.

35) Bigelow, Marybelles. *Fashion in History* (Burgess, 1970), p.85.

36) Davenport Millia, *op. cit.*, p.137.



〈그림 12〉 Undertunic.
(*Unmentionables*, p. 6)



〈그림 13〉 Undertunic, 12C.
(*Survey of Historic Costume*, p. 94)

소매를 노출할 정도로 넓은 소매로 이루어졌고 언더 튜닉의 가장자리 장식은 노출하기 위해 벨트 위로 당겨져서 부라우징되었다(그림 13)³⁷⁾. 12세기에 아웃

튜닉과 언더튜닉이 함께 착용될 경우 언더튜닉의 소매는 밀착되면서 길었다.

Tortora 등은 *Survey of Historic Costume*에서 12세기에 웨앵즈는 상류층이 이용한 겉옷의 독특한 형태로써 길고 주름이 잡혔음을 밝히고 있다. 많은 복식사가들이 웨앵즈와 슈미즈를 혼용해 사용해 왔으나 Goddard(1927)의 11, 12세기 여성 스타일에 대한 의상 용어 연구에서 웨앵즈는 슈미즈 위에 착용되며, 분리된 의상이고 12세기 후반에 웨앵즈는 하우스드레스로써 아웃튜닉 없이 단독으로 착용되며 세탁이 가능한 가벼운 소재로써 여름복으로 주로 이용됨을 밝혔다³⁸⁾. 또한 Yarwood는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에서 웨앵즈는 슈미즈 위에 착용되며 언더튜닉으로 밝히고 있다. 중세의 일부 시기에는 웨앵즈가 겉옷의 역할도 하였지만 블리오 속에 착용되어 속옷의 역할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겉옷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져 속옷의 범주에 넣었다.

코다르디 속에 착용된 언더튜닉은 커틀이라는 용어로도 이용되었다. 커틀은 끈이 매어지지 않고 전완부만 노출되었으며³⁹⁾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착용되었다. 가늘게 주름 잡히고 자수되어진 커틀은 아웃튜닉 목선 위로 보여졌다. 커틀 소매는 밀착된 손목길이의 언더 슬리브로 구성되었고, 가는 주름으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깔대기형태였다. 스목 위에 착용된 커틀은 보통 바닥길이며 까운 속에 착용되었으나 14세기에 겉옷 없이 단독으로 미혼 여성이 많이 착용하기도 하였다⁴⁰⁾.

3) 콜 셋(Corset)

인체 형태를 만드는 도구인 콜셋의 원형은 중세의 12세기 사본에 나타나 있다⁴¹⁾. 이 사본에서는 악마를 여자나 꾸짖기 좋아하는 수도원의 삽화가로 표현되고 있고, 사본에서 표현된 것은 인간 모습이었으나 기괴하고 심술궂은 새모양의 머리와 펼친 날개, 오리발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어깨에서 허리 아래로 뻗은 형상에 끈으로 앞을 락 조였고 매달린 끈이 바

37) P. Tortora, & K. Eubank, *op. cit.*, p.92.

38) *Ibid*, p.95.

39) Yarwood, Doreen, *op. ci.*, p.78.

40) Cunnington & Beard, *op. cit.*, p.121.

41) Ewing, Elizabeth.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1981), p.18.



〈그림 14〉 Stays, 12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32)

딱까지 늘어져 있는 팍 끼는 보디스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14). 12세기의 팍 끼는 보디스는 꼴셋이 된 성형기에 대한 초기 기록으로 속옷사에 중요하다. 팍 끼는 보디스는 조이기는 하였으나 밖으로 노출되어 걸옷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5세기에 유사한 옷이 속옷으로 나타났다. 중세 중기에 여성이 꼴셋을 착용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1170년경에 속애 꼴셋을 착용된 것이 암시될 정도로 까운이 타이트하게 나타나거나 타이트한 끈으로 허리를 조른 것이 이용되었다. 허리를 졸라매는 끈으로 퓨테-누(*futaine*, 무명 섞인 마직물)가 이용되었다. 13세기경에 남녀 모두 몸통을 가늘게 보이기 위해 꼴셋의 초기형인 스테-즈(*stays*)를 이용하였고⁴²⁾ 스페인 귀족층은 밝은 색의 슈미즈와 대조되는 어두운 색의 꼴셋을 착용하였다⁴³⁾. 13세기에 여성이 이용한 꼴셋은 허리를 가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슴선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되었다⁴⁴⁾. 14세기에 Joan 공주의 혼수갑에서도 이중으로 된 승마용 꼬다르디와 꼴셋이 언급되고 있다. 15세기 말엽의 여성상에서도 이전과 같이 타이트하게 매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다시 나타났다⁴⁵⁾. 흰색에서 유래된 긴 캐미솔인 브란세(*blanchet*, 고운 흰

모직물)도 이용됨으로써 여성복이 이전보다 다양해졌다⁴⁶⁾. 꼬트는 걸옷이었지만 뒤를 끈으로 졸라매어 코르셋과 같은 기능도 나타내었다.

4) 버슬(Bustle)⁴⁷⁾

14세기 중엽에 유행을 따르는 숙녀는 버슬에 상응되는 고안물을 착용하였다. 이 고안물은 원시적이었으나 버슬 효과를 가진 형태였으며, 신체선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신체 윤곽선을 강조하기 위해 착용되어 이 모습은 수사로부터 비난되었다. 슈미즈에 면을 넣은 조그만 포켓이 부착되었으며 이 포켓에는 작은 큐션이 달려 있어 허리에서 가슴까지의 선이 강조되어⁴⁸⁾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IV. 중세 남녀 속옷의 특성

1. 사회·문화적 영향

중세에는 종교적인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남녀 속옷은 공통적으로 죄의식이나 겸손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속옷은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처벌의 경우에 착용이 강요되는 중세만의 특징을 이루었다. 중세 후기에 나타난 남녀 걸옷의 사치스럽게 과시된 계층 구별과 성적매력의 새로운 표현이 속옷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된 중세의 특이점을 나타내었다.

2. 걸옷과의 관련성

중세 후기에 남성 걸옷의 상체가 커지면서 역삼각형을 이루어 하체선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남성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 영향으로 드로워즈도 짧고 타이트해졌다. 특히 여성은 타이트한 걸옷의 영향으로 꼴셋과 버슬에 상응하는 고안물을 착용하게 되어 신체선이 밀착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중세 후기부터 남녀속옷의 의복형태 구분이 이루어졌다.

42) 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op. cit.*, p.113.

43) Davenport Millia, *op. cit.*, p.181.

44) Bradley Carolyn G., *Western Wore Costume* (Dover, 2001), p.126.

45) Cunnington, W. & P., *op. cit.*, Dover, p.33.

46) 青木英夫, *op. cit.*, p.31.

47) W. Cunnington, *op. cit.*, Dover, p.33.

48) 青木英夫, *op. cit.*, p.33.

이와 같이 겉옷에 나타나기 시작한 남녀 구분이 속옷에도 적용되어 겉옷과 속옷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3. 속옷의 기능

현대 이전까지 속옷사에서 속옷의 겹침 착용, 속옷 품질, 리프의 크기 등으로 시대마다 신분표시가 중요한 기능이었으나 중세만은 예외로 남녀 모두 신체보호의 실용적 기능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신체선을 드러낸 얇은 슈미즈나 조여진 허리, 선정적인 색상 등을 통해 성적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용성만을 계속 중시해온 남성 속옷과는 기능상의 차이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4. 의복 형태

남성 셔츠는 중세 전기에 커프스와 목밴드 없이 구성되었으며 끈으로 여몄으나 14세기에 이르러 속옷의 변화가 뚜렷해져 길이가 짧아지면서 목과 손목 부분에 밴드가 부착되었고 단추로 여몄다. 언더튜닉은 후기에 겉옷 소매가 짧게 되자 소매가 노출되었다. 고대에 비해 중세에는 남성의 브레 착용이 두드러짐으로써 브레는 중요한 속옷항목으로 부상되었고 후기에 짧고 밀착된 형태로 변화되었다. 웨이스트 코트는 후기에 이르러 실용적인 목적으로 착용되었다(표 1). 여성은 12세기부터 의복형태 변화가 이

루어져 남성보다 일찍 변화가 두드러졌다. 초기의 헐렁한 스목은 12세기 이후로 밀착되면서 스목의 트임이나 겉옷의 슬래쉬로 인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후기에 소재로써 선정적인 면을 나타내었고 언더튜닉은 초기에 비해 옷길이가 길어지면서 소매도 밀착되고 길어졌다. 여성은 콜셋과 버슬에 상용되는 고안물의 착용으로 신체 윤곽선이 강조되었다(표 2).

V. 결 론

중세에는 종교적인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속옷은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중세 후기에 남녀의 겉옷에 계층구별과 성적매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속옷에는 두드러지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속옷이 겉옷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나타낸다는 개념은 중세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중세 후기에 남성 겉옷의 영향으로 드로워즈도 짧고 타이트해졌으며 여성도 타이트한 겉옷의 영향으로 속옷이 타이트해짐과 동시에 콜셋을 착용하여 허리선이 밀착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남녀속옷에서도 의복형태 구분이 이루어져 겉옷과 속옷의 밀접한 관련성이 고찰되었다.

현대이전까지의 속옷사에서 속옷 기능 중 신분표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중세에는 남녀 모두 신체보호의 실용적 기능이 중시되었고 다만 중세 후기

〈표 1〉 중세 남성 속옷의 변화 특성

시 기	셔츠				언더튜닉	드로워즈	웨이스트 - 코트
	길 이	목 선	소 매	목여밈			
중세 전기	허벅지 길이	밴드없음	밴드없음	끈	비노출	길고 헐렁한 형	미착용
중세 후기	매우 짧아짐	목밴드생성	손목 밴드 생성	단추	팔아래 노출	짧고 밀착된 형	착용

〈표 2〉 중세 여성 속옷의 변화 특성

시 기	속 옷	스 목	언더튜닉	콜 셋	버 슬
중세전기		헐렁한 형	발끝길이	미착용	미착용
중세 중기 말엽	밀착, 노출(트임, 슬래쉬) 소재 : 선정적 기능	길어진 옷길이 밀착되고 긴 소매		착용 : 성적 매력	착용 (14세기)

에 이르러 여성의 성적매력이 속옷에서 표현됨으로써 남성 속옷과는 기능상의 차이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중세의 남녀 속옷이 현대에 걸어서 많이 표출되어 걸옷 용도로도 활용됨으로써 속옷사에서 일부 품목은 의복 용도가 변화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고 중세 일부 품목은 현대에 유사한 형태로 다시 나타남으로써 걸옷과 마찬가지로 속옷도 리바이벌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속옷에 대한 사적 고찰의 중요성이 재인식된다. 또한 중세의 남성 속옷명이 현대의 여성 속옷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속옷의 일부 명칭은 성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속옷사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현대에 이르러 속옷과 걸옷의 경계나 남녀 속옷 구별이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영, 한명숙 (2001). 속옷 광고의 구조 및 내용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65-1999 여성 잡지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3호.
- 김미영, 한명숙 (2001). 여성잡지에 나타난 속옷 광고의 문화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5호.
- 김주에 (1985).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에 (2000).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고대에서 근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제3호.
- 류숙희 (1993). 면/폴리에스테르 양면 이중 편성물 내의 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 (1985).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아 (1995).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
- 이경희 (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 이상례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 제35호.
- 인명희 (1992). Double Wearing법에 따른 속옷 착용체계와 착용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복희 (1986).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숙 (1997).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 원 (1994). 서양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有馬澄子 (1996). Infra-Apparelと現代衣生活, 衣生活研究會誌, Vol. 39, No. 6.
-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ソシオン協會. Body Fashion Book, 社團法人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ソシオン協會.
- 青木英夫 (1991).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 深井晃子 譯. セシル・サンロ・ラン (1981). 女の下着の歴史, 文化出版局.
- Benson, Elaine & Esten, John (1996).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 Bigelow, Marybelles (1970). *Fashion in History*, Burgess.
- Bradley, Carolyn G. (2001). *Western Wore Costume*, Dover.
- Cunnington & Beard. (1976).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C Black.
- Cunnington. W. (198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 Faber.
- Cunnington. W. (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 Cunnington. W. (1973). *Hand book of Medieval Costume*, Faber & Faber.
- Davenport Millia (1948). *The Book of Costume*, Crown.
- Ewing, Elizabeth (1981).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 Laclothe, Michel and Cuzin, Jean-Pierre (2000). *The Louvre Paintings*, Scala.
- Nunn, Joan (1990).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 Ruby, Jennifer (1996). *Underwear*, Batsford.
- Torrora, P. & Eubank, K. (1995).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 Yarwood, D. (1954).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 Internet. <http://www.eb.com:180/>. Britannica